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2.23(금) ~ 2024.2.29(목)

제공일시 2023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2.23(금) ~ 2024.2.29(목)

제공일시 2024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미국, 중국 태양광 관련 수입 제재 조짐... 기업들에 공급망 자료 요청

-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과 관련해 기업들을 조사 중인 가운데, 태양광과 관련한 제재에도 착수함
-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중국과 거래하는 태양광 수입 업체들에 광범위한 설문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함
- 설문지는 19페이지로 구성됐고, 수입 업체들에 모듈과 패널의 출처뿐 아니라 생산 시설과 판매 사무소, 연구개발 시설의 위치와 조직도, 도매업자의 송장 등 주요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또, 기업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죄수노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됨

(이투데이 2024.2.27) 고대영 기자

2. EU, 중국산 '유리섬유 원사' 반덤핑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중국산 '유리섬유 원사(Glass Fiber Yarn)'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함
- 주로 단열재에 사용되는 유리섬유 원사는 높은 내화성을 지닌 경량 소재로 풍력발전 블레이드, 전자 회로기판, 카약 등의 생산에 사용됨
- EU 집행위의 이번 반덤핑 조사는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우려한 유럽유리섬유협회(GFE)의 요청에 따른 것임. 이미 다른 유형의 중국산 유리섬유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의 우회 가능성을 보완하는 성격의 띠고 있음

(한국무역신문 2024.2.23) 이용석 기자

3. 태국·인도네시아, 새로운 전기차 인센티브 도입 눈길

-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인구 밀집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급성장하는 전기 자동차 산업을 격려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공개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1일 기업들이 전기자동차(EV)로 전통적인 버스와 트럭 등 상업적인 차량을 교체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승인함
- 태국 투자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차량 가격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 EV 배터리 셀 제조업체는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함
- 인도네시아는 별도로 올해 EV에 대한 고급 세금을 철폐하고 2025년까지 수입세를 줄여 나갈 예정임.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21일 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EV 구매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를 11%에서 1%로 낮출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2.22) 성일만 기자

4. 일본 '녹색전환 채권'으로 탈탄소 앞당긴다

- 일본 정부가 탈탄소 정책을 앞당기기 위해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채권 카드를 꺼내들
- 23일 코트라(KOTRA) 오사카무역관과 니혼게이지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부터 10년간 20조엔(약 178조원) 규모의 GX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향후 10년간 150조엔(약 1337조원) 규모의 GX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GX채권을 신설함
- 국채 발행구조를 보면 상환기간 10년물은 14일, 5년물은 27일 각각 8000억엔(약 7조1328억원) 규모로 입찰을 실시했거나 진행함

(내일신문 2024.2.23) 이재호 기자

1.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 개최

- 환경부가 민관과 함께 자동차 전과정평가를 준비함
- 환경부는 오는 2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에 대한 해외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반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
-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책, 전과정평가, 정보 구축 등 3개 분과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 토론으로 이뤄짐
- 참석자 토론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 제작사, 수입 자동차 제작사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매일안전신문 2024.2.26) 이금남 기자

2. 환경부,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완료해야”

- 27일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 이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함.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해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
-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됐으며,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 산업단지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t 이상은 3000만원, 5만t 미만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포인트경제 2024.2.27) 박주현 기자

3. 정부, ‘글로벌 녹색기술’ 집중 지원… 수출펀드 만들고 투자펀드 활성화/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수주·수출 100조 달성

- 정부가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탑(top)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
- 정부는 환경부 주도로 녹색 혁신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 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10가지 기술을 지원 대상 선도기술로 선정하기로 함
- 10가지 기술은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 극한 물재해 예방·대응 기술, 폐플라스틱 연료·연료화 기술 등임
- 아울러, 정부가 2027년까지 예비 그린 유니콘 기업 10개, 그린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녹색투자펀드 등의 투자 대상에 인수합병(M&A) 목적의 자금 지원도 포함하기로 함

(서울경제 2024.2.26) 조윤진 기자

(전자신문 2024.2.26) 이준희 기자

4. 한국형 탄소차액계약제 나오나… 환경부 제도 구체화 착수

- 환경부는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 운영방안 및 시범적용 연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
- 탄소차액계약제는 기업이 감축설비에 투자하면 정부와의 계약을 사전에 합의된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임
- 재생에너지 시장의 차액계약제도(CfD)를 차용한 것으로, 이는 탄소가격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됨. 현재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임
- 배출권거래법을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자원 조달방안, 기획재정부의 적합성 심사와 같은 행정 절차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예정임

(전자신문 2024.2.25) 최다현 기자

1. ‘수퍼울’ ASML “‘탄소0’ 달성하라” 요구… 삼성·하이닉스 영향은?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고 최근 연간 보고서에서 밝힘
-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CBO)는 “2030년까지 공급망, 2040년까지 고객업체를 포함해 넷제로를 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함
- ASML은 고객사가 넷제로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장비 납품 등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조선일보 2024.2.27) 박지민 기자

2. 태양광 공급과잉인데… 캐나다안솔라 中에 1.8조원 증설투자

- 글로벌 태양광 대기업인 캐나다안솔라가 중국에서 대규모 증설투자에 나섬
- 회사 측은 태양광 산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와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음
- 캐나다안솔라가 연산 14GW 규모의 태양광 패널, 14GW 규모의 태양광 배터리, 14G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을 중국 장쑤(江蘇)성 화이안(淮安)시에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27일 전함
- 공장은 3단계로 나눠서 건설되며, 1단계 공장은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임. 총 투자액은 96.3억위안(약 1조7815억원)임

(뉴스픽 2024.2.27) 조용성 기자

3. 플러그파워, 美자동차 제조사와 대규모 수소 인프라 계약… 포드 유력

- 미국 ‘플러그파워’가 현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대규모 신규 수주를 따냄. 포드가 유력 고객사로 꼽힘
- SK온과 포드 간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블루오벌SK’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차량·부품 생산단지가 들어선 포드 테네시 캠퍼스에 플러그파워 수소 인프라가 깔릴 것으로 예상됨
- 26일 플러그파워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와 고객사 제조 시설 내 수소 인프라와 수소연료전지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더구루 2024.2.26) 정예린 기자

4. 개방형 AI ‘젬마’ 공개한 구글, ‘AI 표준’ 노린다

- 구글이 새 인공지능(AI) 모델 ‘젬마(Gemma)’를 오픈소스(개방형)로 공개함. 메타가 주도권을 쥔 오픈소스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임
- 젬마는 매개변수(파라미터)가 20억·70억 개 수준인 경량 대규모 언어모델(SLLM)로 노트북에서도 작동할 수 있음
- 젬마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 구글이 AI 시장 주도권을 질게 주목됨
- 구글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AI도 출시한 것으로 보임. 대다수 개발자가 젬마를 기반으로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만들면 젬마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서울경제 2024.2.25) 김성태 기자

5. IBM, ERP연계 스코프 3 배출량 측정 자동화 도구 출시

- IBM이 Scope(스코프) 3 계산과 데이터 관리를 손쉽게 해결하는 모듈을 출시했다고 환경리더가 20일 (현지시각) 소개함
- 모듈을 개발한 업체는 IBM이 2022년 1월 인수한 IBM 인비지(Envizi)임
- IBM 인비지가 개발한 모듈(Supply Chain Intelligence)은 ESG 플랫폼 내에서 스코프 3 배출 계산을 위한 공급업체 및 제품 수준 거래 데이터를 관리함
- SaaS 솔루션으로 제공되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는 인비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콰타스(Qantas), CBRE, 우버(Uber) 같은 주요 브랜드에 서비스를 제공함

(임팩트온 2024.2.22) 홍명표 기자

1. 삼성물산 탄소감축 콘크리트 기술 개발

- 삼성물산이 25일 저탄소 콘크리트 제조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탄소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담긴 방법론(탄소저감 콘크리트 방법론)을 개발해 탄소감축인증센터로부터 공식 인증받았다고 발표함
- 삼성물산은 일반 콘크리트 대비 탄소배출량을 약 40% 낮춘 저탄소 PC(Precast Concrete)를 개발해 래미안 현장(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 도입함
- 최근에는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탄소배출량이 약 70% 낮아지는 '제로' 시멘트 보도블록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탄소저감 건설 신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선도함

(스카이데일리 2024.2.25) 박성훈 기자

2. LGD OLED 패널, 업계 최초 '로우 플라스틱' 인증

- LG디스플레이가 TV와 투명 OLED 패널이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 소재 사용은 늘려 글로벌 검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잇따라 획득했다고 25일 밝힘
- 신기술 '메타 테크놀로지 2.0'을 적용한 OLED TV 패널과 세계 유일의 투명 OLED 패널 등 혁신적 화질에 친환경 기술을 더하며 기술 리더십을 인정받음
- 글로벌 안전과학회사 UL솔루션즈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과 게이밍 OLED 패널 전 제품에 '로우 플라스틱' 검증 마크를 부여함. 이 마크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체 중량의 5% 미만인 제품에만 부여됨

(파이낸셜뉴스 2024.2.25) 김동호 기자

3. 아이에스동서, '연 7000톤 처리'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 준공

- 아이에스동서의 자회사 아이에스비엠솔루션이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파·분쇄할 수 있는 전처리 공장을 준공했다고 26일 밝힘
-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아이에스비엠솔루션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은 연면적 8250㎡(약2500평) 규모로, 연간 7000톤 분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 전처리 생산설비를 보유함
- 이 공장은 폐배터리 파쇄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전해액 제거를 위한 특수 공정이 추가됐으며, 현재 이 공정은 특허를 진행 중임

(뉴시스 2024.2.26) 고가혜 기자

4. LG엔솔, LFP 배터리 공급망 구축 나선다

- LG에너지솔루션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사업 확대를 위한 공급망 구축에 본격 나섬
-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양극재 생산 업체 상주리원(常州鋰源)과 전기차 및 ESS용 LFP 배터리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힘
- LG에너지솔루션은 상주리원으로부터 올해부터 5년 동안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약 16만톤(t)을 공급받을 예정임. 이는 400km 이상 주행가능한 전기차 100만대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임
- 양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계약도 논의할 예정임

(뷰어스 2024.2.22) 손기호 기자

5. 포스코퓨처엠, 하이니켈 NCA 양극재 전용공장 착공... 전기차 58만대 분량

- 포스코퓨처엠이 포항에 이어 광양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인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 전용공장 건설에 나섬
- 22일 포스코퓨처엠은 전남 광양시 울촌제1산업단지에서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과 김익현 삼성SDI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재 전용공장 착공식을 개최함
- 광양 양극재 전용공장의 생산 규모는 연산 5만2500t 수준으로, 연간 전기차(60kWh 기준) 58만대 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임. 생산 제품은 전량 삼성SDI에 공급됨
- 공장 준공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됨

(해럴드경제 2024.2.22) 김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2.22) 권준호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2.23(금) ~ 2024.2.29(목)

제공일시 2024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미 SEC, 기후 공시에서 스코프 3 배출 공개 요구사항 일부 삭제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월에 있을 기후 공시를 앞두고 스코프 3 배출량 공개에 대한 요구사항 일부를 삭제했다고 로이터가 단독 보도함
- 스코프 3 배출량 보고가 기업공시 의무보고사항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지난 11월부터 제기된 바 있음
- 스코프 3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온실가스 및 제품이 소비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말함.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에 따르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중 스코프 3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기업들이 외부 공급업체와 협력업체의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범위가 광범위해 스코프 3 공시를 부담스럽게 여겨왔음
-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지난 3월 “이 규정에 대해 위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약 1만6000건의 의견을 받았다”라며 “기업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기후 공시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SEC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미국 상공회의소(USCC)는 이 공시가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함
- 스코프 3 완화 문제를 두고 기업과 투자자, 단체,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이유는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서임. 증권 신고서에 스코프 3를 포함하면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증권 규제 전문가인 컬럼비아 로스쿨 존 커피 교수는 로이터에 “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이든 엄청나게 완화하지 않는 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한편 공시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법대 아멜리아 미아자드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에 SEC가 스코프 3 공시를 요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공시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스코프 3를 측정하기 어렵고 자원이 필요하겠지만, 스코프 3 배출량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출량 측정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함
- SEC가 최종 초안을 확정하면 민주당원 세 명과 공화당원 두 명으로 구성된 총 5명의 위원이 최종 투표를 하게 됨. SEC 대변인은 “위원회는 직원과 위원회가 고려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규칙을 채택할 것”이라고 함
- 표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전에 초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함

(임팩트는 2024.2.26) 유미지 기자